

#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 비교

김윤정\*, 장세철\*\*

\*(e-mail : twoyun21@hanmail.net)

\*\* (e-mail : chang@hanseo.ac.kr)

---

## 目 次

---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1.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특성 비교
    - 2.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
    - 3.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 판별 함수
    - 4. 대학생의 부양의식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인
  - I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 2. 제언
- 
- 

## I. 서론

한국은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하는 UN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와 더불어 가족구조도 변화하고 있어 현재의 가족구조는 3세대 가구의 감소, 1세대 가구의 증가 및 노인 1인 가구의 증가현상을 특징으로 한다. 물론 한국사회는 서

---

\* 주저자 : 김윤정(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 장세철(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부교수)

유럽보다는 늦게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경험하였으나,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는 증가한 노년인구를 누가 부양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3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2020년, 2030년대에 노인을 부양하게 될 현재의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은 미래 한국사회의 노인문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인구나 가족구조의 변화 등 인구학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미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미래의 부양자의 부양의식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부양의식이란 한 개인이 부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나 의식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부양의식을 다차원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분석하고 있다. 대체로 정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 경제적 부양의식으로 나뉘는데, 정서적 부양의식은 부모에 대한 정서적 위로나 위안, 친밀감, 존경, 문제해결 등과 관련되어 있다. 신체적 부양의식이란 편찮으신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수발과 관련되어 있고, 경제적 부양의식이란 노부모에 대한 용돈 드리기, 병원비 드리기, 생활비 드리기 등과 관련되어 있는 부양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부양의식은 기성세대에 비해 청소년이 높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김윤정, 함정현, 이창식, 2005). 특히 대학생들의 부양의식은 기성세대의 부양의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김윤정 등(2005)은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은으로 부양의식이 높을 수 있으나, 현재의 부모세대는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부양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적으로 갈로 부양의식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은 직접적인 부양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이점을 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학생들의 부양의식이 기성세대 보다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물질문명과 개인주의 사조로 인하여 종래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효의 전통이 퇴색하고 있고, 부모 부양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비용과 혜택의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조윤주, 이숙현, 2004). 이러한 성향은 산업화의 진행정도나 그 사회의 가족가치관, 노인에 대한 이미지 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특히, 노인에 대한 정의는 연대기적, 기능적 혹은 문화적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연대기적, 기능적 정의 모두 '문화적인 것'이다(Thane, 2000). 즉, 노인, 노년의 정의 자체가 사회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사회적 또는 도덕적 가치가 내재해 있는 노인부양의식 역시, 문화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문화적 전

통과 가치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데(Vygotsky, 1987 ; 이기숙, 정미라, 김현정, 2006 재인용), 한국과 일본은 동양문화의 유교정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나 부모에 대한 태도, 부양의식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보장제도는 차이가 나므로, 이렇게 다른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양국의 부양의식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부양의식이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지 한국과 일본간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와, 한국과 일본간의 대인적 욕구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즉, 김윤정(2008)은 한일대학생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두 집단의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한국 대학생은 노년기에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 ‘관계지향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지만, 일본 대학생은 ‘개인주의적’인 측면을 중시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제승용과 김연권(1997)은 한국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인적 욕구를 비교한 결과 일본 대학생에 비해 한국 대학생의 원조욕구가 강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양국의 문화적 차이점과 유사점, 그리고 성공적 노화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부양의식에는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학생들의 부양의식은 성별, 거주지, 조부모와의 경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체로 남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이 여학생에 비해 높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양의식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양의식보다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이다(김영호, 2001; 김윤정, 이창식, 2006). 또한,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인식 등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조부모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정, 이창식, 강인, 2004). 즉, 조부모와 자주 만날수록, 그리고 조부모와 친밀할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따라서 부양의식도 조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와의 관계 변수에도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의 대학생과 일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양의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조부모와의 관계, 부모부양 의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둘째,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부모부양의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 대학생 300명, 일본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2007년 6월부터 10월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각 290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국 대학생은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양수업시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본 대학생은 일본의 후쿠오카 현립대학의 사회복지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설문조사에는 담당교과목 교수님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였다.

### 2.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한국어로 작성하여 일본어로 번역하였다. 일본어로의 번역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공동연구자와 현재 일본에서 사회복지전공으로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 참여하였고, 번역된 설문지를 현지의 대학원생에게 확인시키는 절차를 걸쳤다.

#### 1) 부양의식

부양의식은 김윤정(2000)의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김윤정(2000)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부양의식을 신체적 부양의식, 경제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으로 나누었다.

정서적 부양의식은 ‘노부모가 외롭지 않게 방문하거나 함께 이야기를 해야한다’, ‘노부모가 어려운 일이나 괴로움이 생겼을 때 조언을 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노부모가 즐겁도록 바둑이나 장기 등 함께 오락시간을 가져야 한다’, ‘노부모가 친목회 등의 모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등의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alpha=.96$ 이다.

신체적 부양의식은 ‘식사준비, 청소, 빨래, 집안일 등을 해 드려야 한다’, ‘노부모가 몸져누워 있을 때 일을 대신해 드려야한다’ 등의 4문항으로, 신뢰도 Cronbach's  $\alpha=.93$ 이다.

경제적 부양의식은 ‘노부모에게 매월 일정액의 용돈을 드려야 한다’, ‘노부모

가 몸이 편찮으실 경우 병원비를 지원해 드려야 한다’, ‘노부모가 참여하는 취미생활이나 노인대학, 친목회활동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의 3문항으로 신뢰도 Cronbach’s  $\alpha=.94$  로 나타났다.

## 2) 조부모와의 관계

조부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4명의 조부모님 중 살아계시는 조부모님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조부모님의 수를 파악하고, ‘가장 친밀한 조부모님과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조부모와의 만남빈도를, ‘가장 친밀한 조부모님과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전화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조부모님과의 전화 빈도를 측정 하였다.

## 3.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66.4%, 남학생이 33.6%로 여학생의 수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학생의 나이는 18-19세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나이는 21.03세였다. 대학생들은 중소도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47.1%였다.

또한, 생존 조부모수는 평균 2.07명이었으며, 1명, 2명, 3명인 경우가 대체로 20% 대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조부모와의 만남빈도 및 전화 빈도는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측정하였는데, 조부모와의 만남 빈도는 한 달 평균 2.15번이고 한 달에 2번 이상 만나는 경우가 전체의 45.2%로 절반 가까이 된다. 조부모와의 전화는 한 달 평균 2.11번이고 한 달에 2번 이상 전화를 하는 경우가 전체의 45.2%로 만남빈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따라서 가장 친밀한 조부모와의 전화 빈도 및 만남빈도 등 접촉빈도가 한 달에 2번 정도로 대학생과 조부모와의 관계가 긴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lt;표1&gt; 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SD)
성별 (n=580)	남	195	33.6	-
	여	385	66.4	
나이 (n=576)	18-19세	193	32.9	21.03(2.401)
	20-21세	163	27.8	
	22-23세	122	20.8	
	24세 이상	108	18.4	
거주지역 (n=586)	대도시	226	38.6	-
	중소도시	276	47.1	
	농촌	84	14.3	
조부모수 (n=583)	0명	58	9.9	2.07(1.168)
	1명	138	23.7	
	2명	162	27.8	
	3명	158	27.1	
	4명	67	11.5	
조부모와의 만남횟수 (n=431)	한 달에 1번 미만	175	29.9	2.15(.854)
	한 달에 1번	146	24.9	
	한 달에 2번 이상	265	45.2	
조부모와의 전화 빈도 (n=431)	한 달에 1번 미만	198	33.8	2.11(.882)
	한 달에 1번	123	21.0	
	한 달에 2번 이상	265	45.2	

### Ⅲ. 연구결과

#### 1.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특성 비교

##### 1)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에서 부터 표 5까지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의 나이와 거주지역에서의 차이가 유의하였고, 이에 따라 추후 관별분석에서는 이 변수들을 포함시켜서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성별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2).

<표2>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성별 분포 차이

	성 별		계
	남	여	
한국	88(30.3)	202(69.7)	290(100.0)
일본	107(36.9)	183(63.1)	290(100.0)

$\chi^2 = 2.789$

<표3>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나이 차이

구분	N	M(SD)	t값
한국	288	22.89(1.96)	29.177***
일본	288	19.18(.903)	

\*\*\*p<.001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나이 차이는 한국이 22.89세로 일본의 19.18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표4>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거주지역 차이

	거주 지역			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한국	159(54.6)	96(33.0)	36(12.4)	295(100.0)
일본	67(22.7)	180(61.0)	48(16.3)	291(100.0)

$\chi^2$  값 = 64.707\*\*\*

\*\*\*p<.001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거주지역 별 분포차이는 한국 대학생은 대도시 54.6%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농촌 순이었으나, 일본 대학생은 중소도시 61.0%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 농촌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대학생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었고, 일본 대학생들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표4). 이는 표집상의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서울 및 수

도권에서 설문조사를 많이 한 반면, 일본은 후쿠오카 한 지역에서만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 2)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조부모와의 관계의 차이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조부모 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은 1명이 32.3%로 가장 많았고, 2명 29.2%, 3명 18.8%, 0명 15.3% 순이었으나, 일본은 3명 35.3%로 가장 많았으며, 2명 26.4%, 4명 18.3%, 0명 4.7% 순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없는 경우 한국 대학생들은 15.3%로 일본 대학생들의 4.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5).

한편,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간의 조부모와의 만남이나 전화 빈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5>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조부모 수의 분포 차이

	조부모 수					계
	0명	1명	2명	3명	4명	
한국	44(15.3)	93(32.3)	84(29.2)	54(18.8)	13(4.5)	288(100.0)
일본	14(4.7)	45(15.3)	78(26.4)	104(35.3)	54(18.3)	295(100.0)

$$\chi^2 \text{ 값} = 73.274^{***}$$

\*\*\*p<.001

## 2.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별 차이비교를 해본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6).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로 한국 대학생은 전체 문항이 3점 후반대에서 4점대로 부양의식 각 문항에 '그렇다'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 대학생은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또한, 한국 대학생의 부양의식이 가장 높은 문항은 '부모가 편찮으신 경우 병원비를 대 드려야 한다'는 문항이고, 그 다음이 '노부모가 어려운 일이나 괴로움이 생겼을 때 조언을 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의 문항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부모에게 시사적인 얘기나 최근의 뉴스를 이야기 해 드려

야 한다’와 ‘노부모에게 매월 일정액의 용돈을 드려야 한다’의 문항의 부양의식이 다른 문항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다.

<표6>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부양에 관한 문항별 차이 (n=586)

문항	M(SD)		t값
	한국	일본	
노부모가 외롭지 않게 방문하거나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한다.	4.44(.610)	1.73(.912)	-37.526***
<b>노부모가 어려운 일이나 괴로움이 생겼을 때 조언을 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b>	<b>4.39(.648)</b>	<b>1.56(.802)</b>	<b>-40.492***</b>
노부모가 즐겁도록 바둑이나 장기 등 함께 오락시간을 가져야 한다.	4.06(.748)	1.87(.962)	-26.687***
<b>노부모에게 시사적인 얘기나 최근의 뉴스를 이야기해 드려야 한다.</b>	<b>3.70(.860)</b>	<b>2.23(1.074)</b>	<b>-15.776***</b>
<b>식사준비, 청소 빨래, 집안일 등을 해 드려야 한다.</b>	<b>3.89(.856)</b>	<b>2.21(1.032)</b>	<b>-18.429***</b>
노부모와 함께 외식을 해야 한다.	4.04(.820)	1.94(.992)	-24.098***
노부모가 친목회 등의 모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4.29(.706)	2.07(.929)	-28.404***
노부모가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4.24(.670)	1.92(.883)	-31.272***
노부모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원해 드려야 한다.	4.06(.778)	1.79(.896)	-28.077***
노부모가 몸져누워 있을 때 일을 대신해 드려야 한다.	4.33(.702)	1.79(.869)	-37.097***
노부모의 식사, 세수나 목욕, 용변, 취침 또는 집안에서의 거동을 도와드려야 한다.	4.33(.702)	1.62(.810)	-23.045***
영수증처리(공과금 납부 등), 현금관리 등을 도와드려야 한다.	4.13(.796)	2.12(1.027)	-19.677***
노부모에게 매월 일정액의 용돈을 드려야 한다.	4.01(.844)	2.23(1.037)	-26.725***
<b>노부모가 몸이 편찮으실 경우 병원비를 지원해 드려야 한다.</b>	<b>4.55(.588)</b>	<b>1.86(.899)</b>	<b>-38.253***</b>
노부모가 참여하는 취미생활이나 노인대학, 친목회 활동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4.24(.724)	2.40(1.159)	-20.693***

\*\*\*p<.001

그런데 한국 대학생의 부양의식이 높은 문항은 일본 대학생의 부양의식이 낮고, 한국 대학생의 부양의식이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문항은 일본 대학생의

부양의식이 다른 문항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부양의식에서 두 문항권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즉, t값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노부모가 어려운 일이나 괴로움이 생겼을 때 조언을 해 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의 문항에서 한일 대학생의 부양의식이 차이가 가장 컸는데, 이 문항은 한국 대학생의 부양의식 문항 중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이지만, 일본 대학생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문항이다. 다음으로는 ‘노부모가 몸이 편찮으실 경우 병원비를 지원해 드려야 한다’는 문항의 t값이 두 번째로 큰데, 이 문항은 한국 대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이다.

다음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적은 문항들을 살펴보면, ‘노부모에게 시사적인 얘기나 최근의 뉴스를 이야기 해 드린다’의 문항으로 한국 대학생의 경우 3.70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인데 반해, 일본 대학생의 경우는 2.23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이다. ‘식사준비, 청소, 빨래, 집안 일 등을 해 드린다’의 문항 역시 두 집단 차이가 다소 적은 문항이었다(표6).

<표7>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부양의식 차이 (n=586)

구분		N	M(SD)	t값
정서적 부양의식	한국	159	4.166(.508)	-38.339***
	일본	290	1.904(.735)	
신체적 부양의식	한국	159	4.09(.620)	-29.719***
	일본	290	2.04(.822)	
경제적 부양의식	한국	159	4.367(.587)	-31.907***
	일본	290	2.10(.912)	

\*\*\*p<.001

또한 부양의식의 하위요인별로 묶어서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부모부양의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표7). 즉, 정서적 부양의식은 5점 만점에 한국이 평균 4.166점, 일본이 평균 1.904점으로 한국이 높았고, 신체적 부양의식은 한국이 4.09점, 일본이 2.04점으로 한국이 높았으며, 경제적 부양의식도 한국은 4.367점, 일본은 2.10점으로 한국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의 차이에서 정서적 부양의식, 신체부양의식, 경제적 부양의식 모두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 판별 함수

한국과 일본 대학생 두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를 찾아내기 위해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8에서 제시한 예측변수들은 Wilks Lamda에 근거한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enter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hi-square=597.211, p=.000), 대학생의 나이, 조부모의 수, 조부모와의 만남, 정서적 부양의식, 경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이 두 집단의 판별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에 비해 나이가 높고 정서적 부양의식, 경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이 높으나, 일본 대학생은 한국 대학생에 비해 생존해 계시는 조부모의 수가 많고 만남 빈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9개의 변수 중 정서적 부양의식의 차이가 가장 심하였고, 경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 순으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표8).

따라서 한일 대학생은 나이와 조부모의 수, 조부모와의 만남, 부양의식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지나 그 중에서도 정서적 부양의식에서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8>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판별 함수

예측변수들	한국 대학생	일본 대학생	F값	판별함수의 집단 내 구조계수
성별(남=1)	.294(.457)	.379(.487)	2.527	-.038
나이	22.842(1.894)	19.750(.789)	282.834***	.407
거주지(도시=1)	.887(.318)	.914(.282)	.590	-.019
조부모 수	1.996(.912)	2.491(.946)	21.914***	-.113
조부모 만남	1.303(2.441)	2.043(3.498)	5.135*	-.055
조부모 전화	1.616(2.936)	1.250(2.384)	1.334	.028
정서적 부양의식	4.145(.514)	1.926(.764)	1000.568***	.766
경제적 부양의식	4.345(.595)	2.075(.942)	730.027***	.654
신체적 부양의식	4.072(.607)	2.063(.883)	602.595***	.594

Wilks' Lambda= .164 Chi-square=597.211\*\*\*

\*p<.05, \*\*\*p<.001

#### 4. 대학생의 부양의식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인

##### 1) 한국 대학생의 부양의식에 대한 영향변인

한국 대학생의 부양의식에 대한 영향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나이, 거주지와 조부모와의 관계 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나이가 부양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모델의 설명력은 5.8%를 나타냈다. 즉 한국 대학생의 부양의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일 때 부양의식이 더 높았고, 나이가 어릴수록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9).

<표9> 한국 대학생의 부양의식에 대한 영향변인 (n=288)

변인		B	$\beta$	t
(Constant)		5.076		13.060***
성별(남=1)		.176	.170	2.533*
나이		-.045	-.183	-2.665**
거주지(도시=1)		.110	.077	1.322
조부모와의 관계	조부모 수	-.045	-.101	-1.710
	조부모 만남	.009	.040	.618
	조부모 전화	.022	.119	1.822

F = 2.904\*\*

R<sup>2</sup> = .058\*\*

\*p<.05, \*\*p<.01, \*\*\*p<.001

##### 2) 일본 대학생의 부양의식에 대한 영향변인

일본 대학생의 부양의식에 대한 영향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나이, 거주지와 조부모와의 관계 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본 대학생의 부양의식에 대한 영향변인으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6.7%였다. 즉 일본 대학생의 부양의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10).

<표10> 일본 대학생의 부양의식에 대한 영향변인 (n=288)

변인		B	β	t
(Constant)		1.762		2.655**
성별(남=1)		.260	.236	4.087***
나이		.010	.016	.285
거주지(도시=1)		-.056	-.039	-.678
조부모와의 관계	조부모 수	.003	.006	.099
	조부모 만남	-.012	-.079	-1.296
	조부모 전화	-.001	-.005	-.087
F = 3.425**				
R <sup>2</sup> = .067**				

\*\*p<.01, \*\*\*p<.001

## I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 각기 290명을 대상으로 부양의식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세부 문항별 차이 비교에서, 한국 대학생은 ‘매우 그렇다’ 5점과 ‘그렇다’ 4점에 가까운 3.70에서 4.55점까지로 부양의식 점수가 상당히 높은 반면 일본 대학생들은 1.56에서 2.40점까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과 ‘그렇지 않다’ 2점에 가까워 부양의식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의 부양의식이 높은 것은 선행연구(김윤정, 이창식, 2006; 김윤정, 함정현, 이창식, 2005)와 같은 결과이다. 특히, 각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 대학생의 부양의식이 높은 문항을 일본 대학생은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고, 한국 대학생의 부양의식이 가장 낮은 문항에 일본 대학생은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두 집단의 부양의식이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일본 대학생의 부양의식이 낮은 것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의 차이에서의 설명으로 이는 기존의 일본학자들의 주장이다. 일본과 중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KA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 학생의 비공식적 부양에 대한 인식이 중국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중국이 일본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HIRAKA 등, 2006)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두 나라 차이가 없었으나, 부양의식에 있어서는 일본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에 비해 더 부정적이었다. 미국의 경우 공적부양제도보다는 사적부양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가족부양자로서 대학생의 부양의식이 높고, 중국의 경우 역시 공적부양제도의 미비로 가족원에 의한 부양의식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소득 안정화 정책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제도, 공무원과 교직원의 사립연금이 정착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부양을 가족이 아니라 사회의 몫이라는 풍조가 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박광덕, 2005). 따라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착이 노인에 대한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양의식을 약화시키는데 한 몫을 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비교문화심리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이영희(2001)는 한국의 '家'와 일본의 '이에'는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경우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다른 유교문화권보다 강하고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나라이다. 따라서 모든 가치는 부모부양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하나의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에'의 경우 반드시 혈연에 의한 가족에 의해서 가족이 계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역시 낮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대학생에 비해 한국 대학생이 원조 욕구도 강하고 의존욕구도 강하기 때문에(제승용, 김영권, 1997) 부모로부터 원조를 받고 다시 노년의 부모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부양의식이 일본의 대학생의 비해 더 높을 것이다. 거기에 한국 대학생이 삶에서 관계지향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지만, 일본 대학생은 개인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한다는 결과(김윤정, 2008)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양의식이 일본 대학생에 비해 한국 대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지의 부양의식이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부양과 관련된 규범을 측정했기 때문에 한일대학생의 차이가 심화되지 않았는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한국은 체면치레와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양의식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한일대학생의 판별함수에서 한일대학생은 나이와 조부모의 수, 조부모와의 만남, 부양의식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지나 그 중에서도 정서적 부양의식에서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서적 부양의식에서 두 나라의 차이가 가장 컸다는 결과는 일본의 노인부양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기존의 일본학자들(HIRAKA 등, 2006; KARASAWA, 2006)이 일본의 부양의식이 미국이나 중국대학생에 비해 낮은 것을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착에서만 부양의식이 낮은 것을 찾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본 연구에 의하면 일본 대학생은 한국 대학생에 비해 신체적, 경제적 부양의식만이 아니라 정서적 부양의식까지도 현저하게 낮다. 정서적 부양의식이란 신체나 경제와는 달리 가족에게 남아있는 고유의 기능으로 미래의 부양자인 대학생들이 이 부분의 의식까지도 낮다는 것은 일본의 노인문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가족부양에 대한 태도가 강할수록 계속 부양할 의지가 높았다는 연구결과(KARASAWA, 2006)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 노인부양의 앞날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따라서 일본의 부양의식이 낮은 것은 단순히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대학생의 부양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에 비해 조부모의 수나 만남의 빈도는 높지만 부양의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부모의 생존여부나 만남이 부양의식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보현(2006)의 연구에서 부모의 생존여부 및 만남빈도와 부양의식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조부모가 생존해 있거나, 자주 만난다고 해서 부양의식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조부모와의 친밀감과 같은 질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Cartestensens, Mason, Caldwell, 1982; Harshomo, Manaster, 1982)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자주 만나는 것이 곧 더 친밀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또한 자주 만나는 것이 부양의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부양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접촉의 빈도를 늘리기 위한 노력보다는 조부모를 더 이해하고 조부모의 노화를 더 수용하도록 하는 교육을 통해 친밀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부양의식에 영향 미치는 변인을 알아본 결과, 한국의 경우는 성별과 나이가 부양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일본의 경우는 성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 남학생인 경우와 나이가 어릴수록 부양의식이 높았는데 이는 노인부양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김윤정, 이창식, 2006; 김윤정, 함정현, 이창식,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본의

경우도 남학생인 경우 부양의식이 높았다. 이처럼 한일 모두 남학생의 부양의식이 높은 것은 유교문화권에서 남성의 부양의식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여학생의 부양의식이 낮은 것은 부양의 주체로서의 부담과 스트레스 때문으로 설명되어지며, 나이가 적을수록 부양의식이 높은 것은 아직까지 부양에 대한 피상적인 사고와 자기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노부모 부양의식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 2. 제언

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한국과 일본의 미래 부양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부양의식을 비교하고 영향변인을 살펴봤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사회풍토나 가치관이 일본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 학생의 부양의식이 상당히 낮은 것은 미래 한국사회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즉 일본의 경우 노년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정착화 됨에 따라 젊은 층의 노인부양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했는데, 그렇다면 한국 역시 그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며, 또한 이미 시행중에 있는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이다. 또한 한국인의 가치관 역시 원조적이고 의존적인 가치관에서 독립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부양자의 부양의식도 낮아질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중년기 이상의 경우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유교적 가치관이나 가족주의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고, 부양의 책임이 ‘모든 자녀에게 있다’는 응답이 56.8%인 반면 ‘국가나 사회에 있다는 응답’은 4.4%이기 때문에(강현정, 김윤정, 2006), 노년기 부양을 온전히 사회의 몫으로 돌리는 경우 노년기의 삶의 질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 중노년기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가 삶의 질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는 것과는 별도로 미래 부양자의 부양의식을 유지하고 함양하는 교육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 간에는 나이나 거주지에서의 차이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두 집단이 완전히 동일한 집단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설문조사에 있어, 한국의 대학생은

여러 지역에서 표집을 하였으나 일본의 경우는 한 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대학생의 부모가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 부모세대의 부양의식은 대학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고려했다면 대학생의 부양의식이 미래사회에 함의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한다면 한일간의 부양의식의 차이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参考文献】

- 강현정, 김윤정 (2006). 노부모 부양 기혼 여성의 노인복지시설입주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4), 97-112.
- 김영호 (2002). 청소년의 노부모 부양의식 실태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울산과학대학 연구논문집**, 29(2), 41-59.
- 김윤정 (2000). 사회적 지지관점으로 본 가족부양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윤정 (2008). 한일대학생의 성공적 노화 지각 비교. **한국노년학**, 28(3), 567-584.
- 김윤정, 이창식 (2006). 청소년의 부양동기와 부양의식간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13(6), 101-125.
- 김윤정, 강인, 이창식 (2004). 청년 중년 노년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65-75
- 김윤정, 함정현, 이창식 (2005). 부양의식의 세대차이와 결정변인에 관한 연구-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12(4), 243-261.
- 이기숙, 정미라, 김현정 (2006). 한국, 중국, 일본 유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2(5), 81-98.
- 이보현 (2006). 청소년의 효의식과 부양의식이 부모부양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 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45-65.
- 이희자, 김영미 (1996). 청소년의 부모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117-128.

- 제승용, 김영권 (1997). 대인적 욕구에 대한 한일대학생의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 **일본학보**, 39, 313-327.
- 조윤주, 이숙현 (2004).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와 부모 부양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63-74.
- 최강호 (2001). **농촌 초중고생의 노인부양의식 : 경북 봉화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혜 (1997). 진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의 효의식 분석. **학생생활연구**, 6.
- 통계청 (2008). 통계청 DB.
- 朴光駿 (2005). 老人扶養意識의 日韓比較, **社會福祉學部論集 創刊号**, 113-128.
- Cartestensens, L., Mason, S. E., & Caldwell, E. C. (1982).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 international techniques for changes. *Educational Gerontology*, 8, 292-301.
- Hartshome, G. O., & Manaster, J. M. (1982). The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 Contact, importance, role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5(3), 233-245.
- Kaori KARASAWA (2006). The determinants of family members' intention to continue taking care of elderly persons. *The Japanese Society of Social Psychology*, 22(2), 172-179.
- Tie KA, K. YAGUCHI, Xinbia DUO, H. SHIMADA (2007). A Study of the present conditions and further problems concerning the elderly support consciousness answered by university students of both Japan and China. **東海大學健康科學部 紀要第 12号**, 51-63.
- Thane, P. (2000). *Older age in English history : Past experience issu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要 旨

本研究は韓国の大学生と日本の大学生、各々の290名を対象に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し、両国における大学生の扶養意識の差及び扶養意識に関連する変因を把握することに研究の目的がある。

まず、韓国大学生の扶養意識が日本大学生の扶養意識に比べて高かった。すなわち、韓国大学生の扶養意識は5点満点で3.70から4.55までに扶養意識点数がかなり高い一方、日本大学生たちは1.56から2.40点までに扶養意識点数が低いものと現れた。このような結果を社会保障制度発達の差と比較文化心理的な差から起因することで説明した。

二番目、韓日大学生の判別函数で韓日大学生は年齢と祖父母の数、祖父母との会うこと、扶養意識での差が目立つがその中でも情緒的な扶養意識での差がいちばん目立つことと見える。情緒的な扶養意識と言うのは身体や経済とは違って家族に残ってある固有の機能で未来の扶養者である大学生たちがこの部分の意識までも低いと言うことは日本の老人問題に及ぶ影響が大きいことに予想される。従って、日本の扶養意識が低いものは単に社会保障がよく整えているからに解釈するより大学生の扶養意識を高めるための方案を考える必要があるだろう。

三番目、大学生の扶養意識に影響及ぶ変因を調べた結果、韓国の場合は性別と年齢が扶養意識に有意した影響を及ぼしたが、日本の場合は性別だけが有意した影響を及ぼすことと現れた。

本研究は、韓国と日本の未来扶養者である大学生を対象にして彼らの扶養意識を比べて影響変因をしろべたことに研究の意義を探ることができる。日本と同じように社会保障制度が発達している現時点で日本大学生の扶養意識が低いものは韓国社会に含意するところが大きい。従って社会保障制度が発展することとは別に未来扶養者の扶養意識を維持し、涵養する教育が継続的に維持される必要がある。

キーワード ; 扶養意識、社会保障制度, 韓日大学生, 未来扶養者  
社会保障、扶養者活動

투 고 : 2008. 8. 31  
1차 심사 : 2008. 9. 12  
2차 심사 : 2008. 9. 27